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루가 제13주일

성모 입당 축일 종례일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제1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성모 입당 축일 찬양송/ 204. B 236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갈라디아 3,23-4,5 / 봉독서 244
- 복음경 : 루가 18,18-27 / 131. B 8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민족주의는 이단이다” (1872년 위대한 범정교회 시노드 결정)

사도 바울로는 감독(주교)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 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사도행전 20:28)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요한 10:11) 또한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양떼들의 일치와 평화로운 영적 성장을 위해 주님께서는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교회의 직제와 질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최근 결정사항이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 관할 아래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슬라브인들에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게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답을 드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모든 정교인은 ‘하나인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인 교회는 모든 민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차별 없이 대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 3:28)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민족의 구분이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리적, 윤리적 가르침을 변함없이 지켜온 ‘하나’인 교회 곧 정교회는,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마태오 28:19)하신 주님의 계명을 좇아 지상 모든 대륙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시대부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 별로 모여서 지역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교회의 신성한 성사들(성찬예배 등)을 집전하며 지역 교회의 일치를 보전하기 위해, 각 도시에 한 명의 주교를 서품하여 세웠습니다. 그렇게 서품된 주교는 예컨대 리노스 로마의 주교, 야고보스 예루살렘의 주교, 이그나티オス 안티오키아의 주교, 마르코스 알렉산드로스의 주교 등과 같이, 지역의 명칭과 함께 그 도시의 주교라고 불립니다. 또한 교회도 지역 이름과 함께 불리지 민족의 이름과 함께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I고린토 1:2), “테살로니카 교회 여러분에게”(I테살로니카 1:1) 등과 같이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교는 오직 그 자신이 자신의 주교구 신자들에 대한 완전한 사목적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 어떤 주교도 다른 주교의 주교구 내부 문제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주교, 총대주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역 교회의 주교의 허락 없이 그 지역에서 성찬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으며, 어떤 사목적 영적 지침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교의 허락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 교회에 속한 사제, 보제, 봉독자, 성가대, 그 어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의 주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주교, 총대주교라 해도 말입니다. 세계공의회의 결정에 입각한 이러한 교회 질서를 통해 하나인 거룩한 정교회가 일치를 보존하며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상관 없이 한국정교회 대교구에 속한 모든 신자는 다른 지역의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가 한국의 대주교를 제쳐 두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한국 정교회 성당에 가지 말라거나 성체성혈을 영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도 그런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이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지 지시에 어떤 의미도 두지 마시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시로 신자들을 절망케 하고, 주교와 사제와 신자 사이의 친교를 갈라놓으며, 고백성사도 영성체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지녔다 해도 그들이야 말로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그리

☞ 3면으로 계속

☞ 2면에서 계속

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신자라면, 이런 사탄적인 행위에 크게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오직 그들의 민족에게만, 그들의 인종에게만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모든 정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민족주의를 이단으로 선언한 위대하고 거룩한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각 주교는 오직 자신의 주교구에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주교도 자신의 주교구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다른 주교구, 대주교구, 총대주교 관구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오직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부당한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872년 정교회의 위대한 공의회는 특별히 신앙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민족주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회법과 교회의 전승에 근거해 이러한 민족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회론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위대한 공의회(1872년)는 ‘인종적’ 기준을 교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역 교회의 일치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의 체제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 교회를 구분 짓는 것은 지리적인 기준이지 ‘인종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종적 기준은 오히려 한 지역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민족 감정을 부추겨 분열을 야기할 뿐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과 신성한 감사의 성찬에 배도 각 지역의 한 명의 주교의 감독 아래서 이뤄져야 합니다.(위대한 공의회 결정 사항 참조[1] Mansi Tom. 45 column 423&[2]430)

이러한 결정은 세계 모든 정교회에 의해 수용되었고, 교회에 책임을 지고 봉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민족주의의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정교회 대교구의 대주교와 성직자들은 어떤 민족 출신이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출신 민족과 지역을 상관치 않고 모든 정교회 신자를 받아들입니다. 한국정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일치와 조화와 평화 속에서 성찬예배와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껏 그래왔듯이 한국정교회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간구하며,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욱 강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성당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기뻐하며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슬퍼할 자들은, 교회의 분열만 바라는 마귀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또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부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것인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인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항상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이다.”(갈라디아 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로의 권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II 고린토 13:11)

▶ 한국 정교회 대교구로부터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0일(금)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성 안드레아 사도의 중보로 은혜가 충만하게 기원합니다.

소식

대교구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 방문 일정**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께서 12월 3~8일 일정으로 한국에 오십니다.
일정 중에 우리 신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이루어지는 12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성 니콜라스 축일 대만과 및 만찬, 12월 6일(목)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및 오찬 그리고 12월 7일(금) 오전 10~오후 5시까지 있을 ‘정교회의 전통 안에서 본 생태학, 신학,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환경심포지엄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셔서 이 세 개의 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참여하실 분들은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이나, 대교구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철야예배** ▶ 오는 11월 29~30일에 성 안드레아 축일을 맞이하여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5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 오는 12월 2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두 함께 우리의 수호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성당 바닥 카페트 교환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 성당에서는 오랜 세월에 의해 지저분해지고 상한 성당 바닥 카페트를 교환할 것입니다. 카페트 교환을 위해 성당 안의 많은 성물(암본, 주교좌, 의자 등)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1월 26일(월)에 시간을 내셔서 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식

▪ 11월 30일(금)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